기시다, 우크라 방문 "평화 회복까지 지원"

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초청
비살상 장비 6,500억 추가 지원
러시아 학살현장서 "강한 분노"
젤렌스키 "국제질서 수호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은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날이다.

블룸버그와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기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총 71억 달러에 더해 5억 달러(약 6,5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금을 통해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 3천만 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에너지 분야 등에 새로 4억7천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다"며 "키이우와 부차를 방문해 참극을 직접 보고 이를 다시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조율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국제 질서의 강력한 수호자"로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G7 회의 초청에 대해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산업과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지뢰 제거 등 재건 사업에서 일본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앞서 키이우 도착 직후 외곽 도시인 부차를 방문했다.

부차는 지난해 개전 직후 키이우 점령 공세를 벌이던 러시아군에 의해 수백 명의 주민이 학살당한 지역이다.

당시 부차시는 33일간의 러시아군 점령이 끝난 이후 458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어린이였으며,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희생당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일어난 잔인한 행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일본 국민을 대표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를 향해 "국제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치욕"이라고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키이우에서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방문해 헌화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에 인도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애초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도쿄로 돌아오는 대신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해 전세기를 타고 폴란드로 향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됐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도서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평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선 "일본이 상황 악화가 아니라 진정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회담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의 파트너가 돼줄 것을 제안했다"며 "모든 경로로 해당 공식을 전달했고 대화에 초대했으나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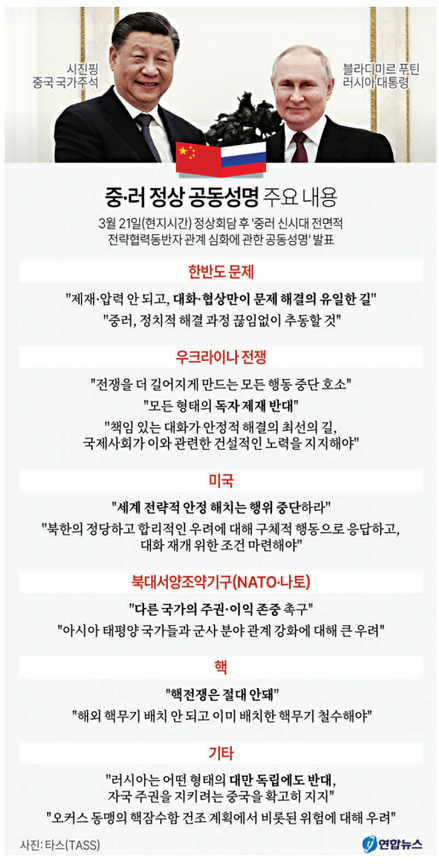
또한 "약간의 신호가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도 이날 시 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시 주석의 일정 문제로 금명간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가 21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 외곽 부차의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회 공동묘지를 방문해 러시아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푸틴 "미, 세계안정 훼손 말라"

공동성명…"러, 대만 독립 반대"
"미, 북한과 대화 조건 마련해야"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국의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한 반미연대를 과시했다.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며, 자국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행동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오커스 동맹이 핵잠수함을 만들기로 한 계획에서 비롯된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겨냥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위기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밀어붙일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중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치적 해결에 관한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두 정상은 또 상황을 긴장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어떤 국가나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존중하도록 촉구한다"며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군사 분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정치 동맹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나토는 동맹의 지역적·방어적 성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도 재확인했다.

이들 정상은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구체적 행동으로 응답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38노스 "북한, 순천비행장 개보수 거의 마무리"

북한이 평양 방어용 공군기지로 이용하는 순천 군사비행장의 개보수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근거로 2년간 진행돼온 순천 비행장의 현대화 공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약 45㎞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평안남도 순천 비행장은 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북한 주력기를 모아둔 군용 비행장으로 2021년 봄 보수공사를 위해 폐쇄됐었다.

이 비행장은 북한 제55전투비행단의 본거지였고, 31대의 수호이(Su)-25 공격기와 12대의 미그(MiG)-19 전투기를 포함한 북한의 정예 전투기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군용기들은 비행장 보수 기간 동안 다른 비행장으로 재배치됐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8월 순천 비행장 활주로를 기존 2,500m에서 2,800m로 늘리는 공사를 마쳤었다.

이후 추가 공사를 통해 비행장 북단과 중앙에 각각 하나씩 2곳의 계류장이 추가로 건설됐고, 남단의 기존 계류장은 확장된 것으로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파악됐다. /연합뉴스